

주택 공시가격에 시세 상승분 반영한다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종부세·청약제 개선 등 법령 개정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정부가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기로 했다. 실거래가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아 조세정정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 유형과 지역, 가액별 형평성 개선에도 나선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1급회의를 열어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 계획과 준비상환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참석했다. 정부는 9·13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종량부동산세(종부세)와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내 조속한 논의를 위해 당국도 긴밀히 협조한다.



휘발유 값 1년만에 10.5% 상승, 16주만에 최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오전 서울 도심 주유소 가격표에는 휘발유값이 1900원 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김치 브랜드 대상에 영암(주)왕인식품 '남도미가'

올해 최고 품질의 김치로 (주)왕인식품의 남도미가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제7회 김치품평회'를 열어 품질이 우수한 김치 브랜드 6개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김치업체가 추천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맛, 안전, 위생, 소비자접근성, 농업연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안전·위생(20~25점)과 소비자접근성(5~45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높였다.



의 '도미솔김치'와 전북 진안 부귀농협이 '바이담', 충남 태안 (주)담채원의 '채가미' 등 3개 브랜드가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6개 우수 브랜드는 정부 포상과 함께 TV홍소평 입점 기회 등 홍보·관측 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 제7회 김치품평회 결과 발표...6개 선정
우수 브랜드 정부 포상·TV홍소평 입점 등 지원
농식품부는 국산 김치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김치품평회를 열어 우수 김치 브랜드를 선정·발표해오고 있다. 김치 전문가 10명과 소비자패널 6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전국 대상은 전남 영암의 (주)왕인식품에서 만든 남도미가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충북 청주 (주)에소담의 '에소담'과 경기 수원 (주)풍미식품의 '유정임 포기김치'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경기 파주 도미식품

영암=조대호 기자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의 '주택소유 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개발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 관리를 강화하고,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 출처와 세무조사도 계속 실시한다. 인터넷 카페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

정부는 9·13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당국과 엄밀한 협회·금융회사 간 합동 상시점검체제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1일 발표될 공급대책과 관련해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요시 회의를 추가로 열어 시장 동향 및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신속하게 추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해외주식 직구족 10명 중 6명 "투자 늘리겠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갈등 및 일부 신흥국의 유동성 문제 등에도 투자자들의 해외주식직구 열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최근 개최한 해외주식세미나 참석고객 중 5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7%가 해외주식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답했다. 유지하겠다는 답변도 31.1%에 달했다. 특히 자신의 금융자산 중 해외비중을 얼마까지 늘리겠다는 질문에 대해 최대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답변이 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망투자지역으로는 미국이 40.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이 28.3%로 2위에 올랐다. 중국은 무역분쟁 영향으로 21.7%를 차지하며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승욱 강진군수(가운데)가 17일 강진에서 재배하는 친환경 작두콩차를 홍보하고 있다.

친환경 작두콩차로 역대부농 도전하는 강진 귀농부부 눈길

송용기·홍여신씨 부부

강진군에 터를 잡은 귀농부부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작두콩차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 강진군 군동면 석교마을에 귀농한 송용기(54), 홍여신(47·여)씨 부부가 2016년부터 친환경 농법으로 작두콩을 재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친환경 작두콩 12t을 수확해 온라인 쇼핑몰과 지역 로컬푸드매장, 초록민을 직거래지 일센터, 소비자 직거래 등을 통해 약 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늘어난 1억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송씨 부부는 강진지역 30여 농가의 함께 친환경 작두콩 작목반

을 꾸려 직접 1대 1 맞춤형 재배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홍 대표는 "귀농한 지 4년차에 벌써 역대부농의 꿈이 코앞에 다가온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작두콩이 강진을 대표할 수 있는 소득작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제조·가공 규모화와 식품가공기반 확충을 통해 고품질의 작두콩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되도록 관료 확보에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열에 좋은 작두콩차는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하며 호흡기 질환, 피부질환, 위장질환, 당뇨, 면역력 강화에 뛰어난 효능을 지니고 있다.

강진=김명일 기자

가을정취 만끽하기 좋은 농촌명소 어디?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농촌 명소는 어디일까. 농촌진흥청은 17일 '2018 가을 여행 주간(9월 23일~11월 4일)'을 맞아 가족이 함께 걸만한 농촌 여행코스 15선을 선정·발표했다. 코스별로는 ▲경기 포천(포천국립수목원→불인덕농원→정산별마→포천 산정호수→지동산촌마을) ▲강원 원주(원주삼토펬스티발→폐지문화원→산들내음→소금산 출렁다리) ▲강원 횡성(횡성한우축제→글로리아 허브농원→답산→신촌노아의 숲→밤부둑마을) ▲강원 양양(오색허브농원→설악산·오색약수터→양양송이축제·양양연어축제→낙산사→송천떡마을) ▲충북 보은(보은대추축제·속리산단풍가야제→배영속산초밥상→가림파→동화

농민혁명기념공원→산모래이풀내음→오창환문화관→운제항기→구병리마을) ▲충남 금산(금산인삼 축제→월명팍→진악산밭→비리실마을→남이자연휴양림→수통마을) ▲전북 김제(김제지평선축제→안시성용기→삼의 향기→금산사) ▲전남 구례(구례동편소리축제→한국압화박물관→지리산휴가→지리산과하나되기·지리산발효학교→지리산온천랜드→피이골단풍축제→연곡사→운조루) ▲제주 서귀포(서귀포시 철심리축제→해남단 공충농장→종달수다밭→서월의 평→서려니 숲길→신풍리 여망이방전차마을) ▲인천 강화(강화고려인삼축제→강화역사박물관→강화수수축제→국화리 팜랜드) 등이다.

뉴시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